

# 위탁 청소년들 “나만의 가구 만들고 싶어요”

###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진행 10명 4주 동안 목공예 수업 자신감 키우고 상처 극복 계기

할머니와 살고 있는 중학생 진형(가명)군은 소극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눈맞춤을 피하는 등 자신감이 부족하다. 또래에 비해 공부에 관심이 덜한 진형군은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불안정한 가정형태는 진형이의 사춘기를 더 힘들게 했다.

진형이는 최근 미소를 되찾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문정훈·센터)가 진행하는 ‘목공예를 통한 자신감 향상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다. 센터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청소년기에 접어든 위탁아동 10명을 뽑아 광주시 청소년 삶다자이언센터와 함께 이 행사를 진행했다.

‘목공예를 통한...’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신감의 결여’ 등을 위탁아동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광주에는 총 266세대 345명의 위탁아동이 있다. 이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가 최근 진행한 ‘목공예를 통한 자신감 향상 프로젝트’에 참여한 위탁아동이 원목을 다듬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공)

들 위탁아동 중 다양한 요인으로 자신감이 결여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센터가 ‘목공예를 통한 자신감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감

성을 일깨우고 재능을 일깨울 수 있다는 데 있다. 목공예가 단순히 목재의 성질을 이해하고 공구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넘

어 무더진 손의 감각을 깨우고 스스로 쓰

임을 찾는 자립기술의 하나로 매우 유용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목공예는 또 아이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게 센터측의 설명이다.

4주 동안 이번 목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위탁가정 아동은 “목공예를 배워본 게 처음인데 원목을 다듬고 고치는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에 몰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 좋았다”며 “목공예를 배워 ‘나만의 가구’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부모가 특정한 사유로(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가정위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어려운 복지제도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 광주복지재단 무료 교육

광주복지재단이 복지제도 알리미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시민복지교육에 나섰다.

4일 광주복지재단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복지제도 알리미단과 함께 ‘주체적으로 복지정보를 알고 누리는 시민’을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제도’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운영 기간은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며, 교육대상은 복지제도에 관심있는 기관, 기업, 단체,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교육 대상자가 10명 이상이고, 신청자가 지정한 교육장소가 있어야 한다.

교육내용 및 주제는 ▲저소득층을 위

한 복지 ▲알아두면 든든한 사회보험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 ▲퇴직자·노년층을 위한 복지 등이다.

교육강사는 광주복지재단 복지제도 알리미단이 맡게되며, 교육방법은 희망하는 강의 신청 시 복지제도 알리미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비는 무료.

교육신청 방법은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이메일(gjwf@daum.net) 또는 팩스 (062-603-8377)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기간은 10월까지이며, 교육 희망일 2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감사파견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난달 23일 진행된 광주복지재단 ‘찾아가는 복지제도’ 교육. (광주일보 자료사진)

## 장애·장벽 없는 문화 ‘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

오늘부터 사흘간 시청자센터

무료 자막·화면 해설 영화

광주사회적경제 주간행사 다채

광주에서 시·청각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보는 특별한 영화제가 열린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비장애인이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 장애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영화를 보는 체험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눈길을 모은다.

광주시는 5일부터 7일까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2017 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 홀에서 개최한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장벽(barrier)’이라는 단어와 ‘없음(free)’을 합친 단어로, 자막과 화면 해설이 포함돼 시청각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상이다.

영화제는 ‘2017 광주사회적경제 주간행사’의 하나로, 사회적경제의 사회가치 실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장애인연합회, 광주시

### ■ 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 상영작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소중한 날의 꿈

피부색깔 = 풀색

양리 양리

청자미디어센터, 광주인권영화제가 공동 주관하고, 사회적기업 필름에이지가 영화제 진행을 맡았다.

광주은행을 비롯한 1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이 후원에 참여하는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영화제에 도움이 되도록 보탬다.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시작으로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소중한 날의 꿈’, ‘피부색깔 = 풀색’, ‘양리 양리’ 등 5편의 영화가 3일간 8회 상영된다.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제작 뽕상 파타, 스테판 오비에, 뽕자민 레네)은 따뜻한

한 수채화풍 그림들이 음악과 어우러져 동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다.

서로 껴보지 않았음에도 꿈은 쥐를 혐오 대상으로, 쥐는 꿈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어네스트(꿈)와 셀레스틴(쥐)는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돕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어떻게 서로 친구로 지낼 수 있느냐’는 세상의 질문에 그들은 음악과 그림으로 답한다. 겨울공경에 대한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그 음악에 맞춰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압권이다.

‘양리 양리’(감독 마르탕 탈보)는 빛을

테마로 한 영화다. 수녀원에서 자란 양리는 고장 난 조명을 고쳐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조명이 꺼져 취직하게 된 그는 여러 친구들을 만나 그들에게 빛을 받기도 한다. 그 중 극장 대표인 헬렌에게 첫 눈에 반해 자신을 소개하지만 헬렌은 빛을 볼 수가 없다.

‘2017 광주사회적경제 주간행사’는 광주시 주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윤영선), (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회장 김원준) 공동 주관으로 광주시청 1층 시민숲과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지에서 열린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들이 연대와 상생을 통해 하나가 되는 의미를 담은 ‘연대로 하나되는 사회적경제’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상품 품평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윤영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열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관람신청은 장애인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의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2-531-6667~8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시,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 확대

광주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53.8개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 광주 다음으로 강원이 53.6개, 전북 51개, 제주 43개, 전남 38개, 대전 37개, 충북 34개, 서울 32개 등의 순이다.

광주지역 취약계층의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광주지역에는 사회적기업 125개, 마을기업 52개, 협동조합 626개 등 모두 803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 중이다.

광주시는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위해 인건비·제품개발 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 지원에 올해 109억원을 투입,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발전 가능성이 큰 사회적기업을 뽑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한다. 심사를 거쳐 5개 이내 기업을 선정해 2000만원 이내 기업 운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료 할인, 디자인 상품화 지원, 제작자 자녀 장

학금 등도 제공한다. 또 ‘사회적기업 조성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금 확보방안, 용도, 운용 방법 등을 결정해 기금을 활용한 지원 대책도 세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사회적경제 제품의 공공구매도 공시제 의무시행도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종합지원기구인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설립했다.

센터는 통해 기업 간 협업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돕기 위해 지원조례와 종합발전 계획까지 마련해 시행 중이다”며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사회적기업의 날을 기념해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 등에서 ‘광주사회적경제 주간행사’를 한다.

행사 기간 상품 품평회, 사회적경제 포럼, 사회적경제 기업 시상, 찾아가는 음악회, 영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도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급 매”

###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즉시 입주가능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9천 9백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78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나주, **싼**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4200만원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H. 010-3605-5000